

한국 화교사회의 정치적 조직과 역동성 -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이 창 호**

목차

들어가는 말

I. 인천화교협회의 역사적 변천과정

1. 한중수교 이전의 변화양상
2. 한중수교 이후의 변화양상

II. 한중수교 이후 화교사회의 정치적 변화

1. 친중국제 정치조직의 출현 및 전개과정
2. 지역조직과 글로벌 조직의 연계와 그 의미

나오는 말

* 본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진연구장려금지원(과제번호: 2004-908-B00033)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의 일부를 보완·수정하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관리·감독 하에 수행된 연구결과물로서 저작권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07년에 마무리되었지만 내용 중에는 당시 인천 화교사회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생활 노출의 우려 때문에 바로 기고를 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지금이 문제화되지 않을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학술지에 게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들어가는 말

‘정치’(politics 혹은 Politics)는 학문분야와 학자들에 따라 그 개념이 각기 다르다. 정치인류학에서는 정치를 세 가지 정도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첫째, 정치적 프로세스는 사적(私的)이라기보다는 공적(公的)이다; 둘째, 정치는 항상 공적인 목표와 관련이 되어있으며 나아가 이를 포함한다; 셋째, 정치는 일종의 권력 집중을 수반한다’ 라는 것이다.¹⁾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에도 불구하고 화교사회의 경우 무엇이 정치적이고 무엇이 아닌지 구분하기는 매우 모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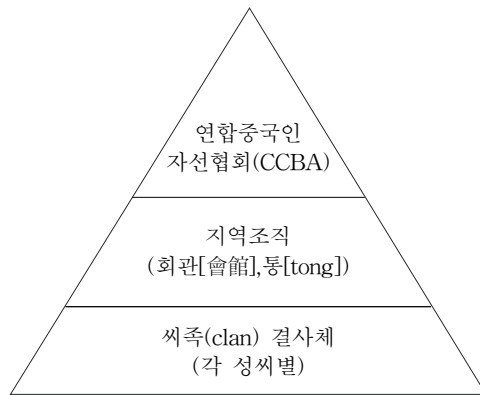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인천 화교들의 정치적 조직인 인천화교협회와 2002년에 발족된 친중국계의 인화중국화평통일촉진회(仁華國和平統一促進會), 그리고 2005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세계화상대회를 주최했던 화교들의 경제인 모임인 한국중화총상회(韓國中華總商會)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여기서는 공적인 정치적 과정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해관계도 화교사회의 정치 양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분석된 정치자본은 화교 개인 및 집단이 한 사회 내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사회적 관계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화교 집단의 조직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크리스먼(Crissman)의 연구를 들 수 있다.²⁾ 크리스먼은 동남아시아

1) Swartz, Marc J. & Victor W. Turner & Arthur Tuden, "Introduction", Marc J. Swartz & Victor W. Turner & Arthur Tuden(eds.), *Political Anthropolog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1966, pp.4-7.

2) Crissman, Lawrence, "The Segmentary Structure of Urban Chinese Communities", *City Ways: A Selective Reader in Urban Anthropology*, John Fridel & Noel J. Crissman(eds.).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75(1967), p.281.

의 도시들과 미국 내 여러 차이나타운에서 화교들의 사회조직의 패턴은 중국의 바깥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본토 중국 도시에서 이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교 공동체들이 분절적이며 위계적인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을 공간적으로 위치시켜 본다면 <그림 1>과 같다. 고향에서의 사회조직에 대한 관념이 이주지에서 공간적으로 형성된 이 분절적 모델의 기층에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타고난 장소(native place), 즉 향토(鄉土)가 있다는 것이 상정된다. 즉, 중국인들에게 이름이나 종족(宗族)과 같은 귀속적이고 고유한 성원권은 영구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성(姓)과 적관(籍貫)이 기층이 된 화교들의 결사체 모델에서 각 층위는 서로 맞물려 있으며 분절적이고 위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 내의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향토에서의 질서가 이주지에서 공간적으로 위계적이고 분절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과 상위조직과 하위조직의 상호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잘 보여주었던 크리스먼의 연구는 이후 중국인 이주자 사회를 이해하는 주요 모델의 하나가 되었다.



<그림 1> 크리스먼(Crissman)의 분절적 모델³⁾

그러나 동남아 사회 화인들의 결사체들이 동남아 화인사회에서 발생한 독특한 사회조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했다.⁴⁾ 즉 크리스먼은 차이나타운을 고립된 에스닉 집단이 모여 있으며, 비동화적이며, 자율적이고 분절적인 상황으로 묘사했는데, 이러한 차이나타운의 모습은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사회의 경우 1960년대 중반 이래 홍콩과 대만으로부터의 중국인들의 거대한 이주로 인해 차이나타운의 권력구조가 크게 바뀌었으며, 학교교육과 영어,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영향과 함께 미국 사회에 동화된 2세대들은 차이나타운의 전통적인 중국인의 하위경제 안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었다.⁵⁾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 미국 내의 중국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크리스먼의 분절적 모델이 현대 도시화된 중국인 공동체들에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웨이스(Weiss 1974)는 캘리포니아의 중국인 밀집주거지인 벨리시(Vally City)에 대한 연구를 통해 크리스먼의 분절적 모델이 1850~1940년에는 잘 적용이 되지만 그 뒤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조직이 나타나면서 그 전과는 다른 '3분체제'(tripartite system)의 양상을 띠는 사실을 발견했다.

왕(Wong) 및 마이리치엔(麥禮謙) 역시 1965년 이래 새롭게 등장한 전통적인 조직과는 다른 새로운 결사체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⁶⁾

3) 출처: Chen, Hsiang-Shui, *Chinatown No More: Taiwan Immigrants in Contemporary New York*.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p.9.

4) 박은경, 『다수민사회로서의 싱가포르 화인』, 『동남아의 화인사회』, 서울: 전통과 현대, 2000, 364쪽.

5) Chen, Hsiang-Shui, *op.cit.*, pp.11-12.

6) Wong, Bernard P., *Chinatown: Economic adaptation and Ethnic Identity of the Chines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2.

麥禮謙, 『從華僑到華人: 二十世紀美國華人社會發展史』, 香港: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 1992.

이 결사체들은 이른바 중국인들의 미국 이민에 있어서 이른바 ‘제 3의 물결’이라고 부르는 1965년 이민법개정 이후에 규모와 숫자가 증대하기 시작했다. 1965년 이후 미국사회에는 이주한 중국인들이 세운 새로운 지역적 조직, 동창회, 정치적, 상업적, 종교적 결사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⁷⁾ 이들 조직이 과거 조직과 다른 특징은 크리스먼 모델의 제일 상단에 위치한 중국인자선협회(CCBA)의 보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큰 사회를 지향하며 거주국인 미국사회에 뿌리를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조직은 뉴욕 차이나타운에만 1980년 현재 200여 개가 넘으며 코스모폴리탄적인 전망을 가진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성원들이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전통적인 결사체들과 뚜렷하게 다르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⁸⁾ 이것은 이주 중국인의 사회조직이 점차 중국인의 공동체를 넘어서 더 큰 지향점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세대 간의 차이, 거주국에서의 교육, 종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경우 1948년에 남한 정부가 수립되어 외국인 출입을 규제하게 되자 중국인의 한국 이주가 중단되었고, 1949년 공산화된 중국대륙과의 단교 이후 화교사회는 순전히 인구의 자연 증가에 의존하여 커 갈 수 밖에 없었다.⁹⁾ 따라서 한국 사회 내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화교세대의 출현과 변화과정은 중요한 내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세대 간 차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된 것

7) 예를 들면 대만연합회(Taiwan Association), 홍콩학생협회(Hong Kong Student Association), 광둥국민대학 동창회(Kwantung Kuo-min University Alumni) 등이다.

8) Wong, *op.cit.*, pp.23-24.

9) 장수현, 『한화(韓華), 그 배제의 역사』, 『당대비평』19호, 2002, 245-258쪽.

은 1992년의 한중수교라고 볼 수 있다. 한중수교로 인해 구세대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이념과 도덕 등은 재조정이 요청되었으며, 신세대들은 부모세대의 고향인 중국대륙과의 교류의 확대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영토화(re-territorializing)해나가면서 점차 탈지역적이며 코스모폴리탄적인(cosmopolitan)¹⁰⁾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화교사회의 결사체에 대한 논의들은 특히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맞물려 서구와는 다른 경제적 원리와 실천양상이 주목되기도 했다.¹¹⁾ 그러나 중국인 이주자 사회의 수많은 결사체가 서구사회의 그것과 다른 특징을 보이기는 하지만 결사체의 구조나 성격 자체로 이주자들의 거주국에서의 적응과정에 나타나는 역동성 및 관계의 실제적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신용’(信用)이나 ‘관시’(關係)와 같은 중국사회의 문화적 원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문화의 고유성에 대한 강조 혹은 독립변수로서의 사용은 자칫 중국성에 대한 근원주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¹²⁾

10) 초국성(transnationalism)이 고향과 거주국이라는 이중성의 의미를 지녔다면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은 장소의 물질성을 넘어서는 본질적 태도로써 최근 변화하고 있는 중국인 이주자의 정체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더 적합한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다(Chan Kwok-bun, *Chinese Identities, Ethnicity and Cosmopolitan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11) Redding, S. Gordon, *The Spirit of Chinese Capitalism*. Berlin ·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3.

Tong Chee Kiong & Yong Pit Kee, "Xinyong and Chinese Business Network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9(1). 1998, pp.75-96.

12) Kipnis, Andrew B, *Producing Guanxi: Sentiment, Self and Subculture in a North China Village*,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7, p.184, pp.120-121.

이런 점에서 비록 중국인 이주자 사회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중국 본토에서의 사회적 지위 및 관계의 원리 및 실천양식으로서 관시, 런칭(人情), 간칭(感情), 미엔쯔(面子), 바오(報) 등 중국사회의 일상적 원리와 개념들에 대한 費孝通, 佐斌, 喬健, 黃光國의 연구¹³⁾와 이 개념들의 일상적 실천에 초점을 둔 Yang, Yan, Kipnis의 연구 성과들¹⁴⁾은 본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¹⁵⁾ 특히 관시와 같은 사회자본이 경제자본, 정치자본, 혹은 상징자본으로 전환된다¹⁶⁾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화교사회의 도덕적 원리의 활용이 다차원적이며 보다 복잡한 동학(動學) 속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천시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에서의 장기간에 걸친(2004년 3월~2005년 8월, 이후의 보완조사 포함) 문화인류학적 참여관찰 및 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화교사회의 공식·비공식적 조직의 구조 및 조직 내부의 갈등과 조정·협상을 포함한 정치적 프로세

13) 費孝通, 『鄉土中國·生育制度』.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1947)(이경규 역, 『중국사회의 기본구조』. 일조각, 1995.).

佐斌, 『中國人的臉與面子: 本土社會心理學探索』, 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7.

喬健, 『關係芻議』, 『中國人的心理』. 楊國樞(主編),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2006, 82-95쪽.

黃光國, 『中國人的人情關係』, 『中國人: 觀念與行爲』. 文崇一·蕭新煌(主編),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2006, 30-50쪽.

14) Yang, Mayfair Mei-hui, *Gifts Favors & Banquets: The Art of Social Relationships in China*,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Yan, Yunxiang, *The Flow of Gifts: Reciprocity and Social Networks in a Chinese Villa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Kipnis(1997) *op.cit.*

15) 관시(關係)는 중국문화의 맥락에서 ‘특수한 유대’(particularistic ties)를 뜻한다. 여기에는 친족, 동향(同鄉), 동학(同學) 등이 포함된다(Gold, Thomas, Doug Guthrie & David Wank,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Guanxi”, Thomas Gold, Doug Guthrie, and David Wank(eds.), *Social Connections in China: Institutions, Culture, and the Changing Nature of Guanx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6).

16) Gold, Thomas, Doug Guthrie & David Wank, *Ibid.*, p.7.

스(process)를 파악하고자 했다.¹⁷⁾ 특히 화교사회의 정치적 과정에서 중국사회의 기본원리들인 관시, 런칭, 미엔쯔, 바오, 칭커(請客) 등이 상징적 혹은 실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전략화 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이주자들의 거주국에서의 적응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역동성의 지점 및 사회적 관계의 실제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했다. 이는 오늘날 세계화와 함께 급속하게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이주자 사회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I. 인천화교협회의 역사적 변천과정

1. 한중수교 이전의 변화양상

적어도 1948년까지 인천 화교사회의 조직모델은 크리스먼의 모델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후에는 시기적으로 큰 변화를 겪어왔다. 크리스먼이 언급했던 분절적이고 위계적인 모델은 한국사회에서 적어도 해방 전까지 잘 나타나다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는 화교 조직체들이 분단이라는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적응해 나가야 하면서 성격이 바뀌거나 통합되기 시작했다.

화교사회에서 중간범위의 정치조직인 화교협회(인천)의 변천과정은 <표 1>에 잘 나타나 있다. 역사적으로 임오군란 이후인 1882년 8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면서 청상(淸商)의 조선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국 화교사회의

17) 이 논문에 등장하는 주요 면담자의 인적사항은 논문 말미의 부록에 추가해 놓았다.

<표 1> 인천화교협회(仁川華僑協會)의 변천과정¹⁸⁾

명 칭	연 도
中華會館	1887~미상
仁川中華商務總會	1913~미상
仁川華商商會	1930~미상
仁川中華商會	1946년~1947년
南韓華僑自治區公所	1948년~1950년
仁川中華商會	1948년~1950년
仁川華僑自治臨時委員會	1951년~1952년
仁川華僑自治會	1953년~1955년
仁川華僑自治區	1955년~1956년
仁川華僑自治區	1956년~1960년
仁川華僑協會	1960년~현재

공식적이고 전국적인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883년 9월 상무공서(商務公署)가 서울의 회현방 락동(駱洞, 현 명동 2가)에 설치되었고 동년 11월에 인천에 상무서(商務署)가 설치되었다. 이듬해인 1884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이 체결되어 인천에 조계지역인 청관(淸館)이 형성되자 서울·인천지역의 화교사회에서 대표를 뽑아 조직된 ‘중화회관’(中華會館)이 설립되었으며 동향회와 동업조직들이 속속 발족되기 시작했다.¹⁹⁾ 중국상인들의 자치조직인 인천화상상회(仁川華商商會)가 청국거류지에 설

18) 출처: (1) 韓國仁川華僑協會, “韓國仁川華僑協會 僑情簡報”. 2001, 2-3쪽, (2) 장세윤, 『만보산사건 전후 시기 인천 시민과 화교의 동향』, 『인천학연구』2(1), 2003, 216쪽.

19) 박은경, 『한국화교의 種族性』, 서울: 한국연구원, 1986, 58-59쪽.
이은자, 『청말(淸末) 주한(駐韓) 상무서(商務署) 조직(組織)과 그 위상(位相)』, 『명청사연구』30, 2008, 367-369쪽.
김희신, 『주조선사관(駐朝鮮使館)의 화교 실태조사와 관리: 청일전쟁 이전 한성(漢城), 인천(仁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34, 2010, 231쪽.

립되었으며 인천화상상회는 출신지역에 따라 광둥방(廣東幫), 남양방(南洋幫), 북양방(北洋幫) 등의 단체를 조직하고 이 3방이 회관을 건립하였다.²⁰⁾ 1913년에는 중화민국 상회법(商會法)에 따라 인천 재류의 상점으로서 ‘인천중화상무총회’(仁川中華商務總會)가 결성되었고 군산 및 목포에도 분회를 설치하였다. 당시 ‘인천중화상무총회’의 책임자는 산둥(山東) 엔타이시(烟台市) 출신인 푸샤오위(傅紹禹)로 리통호(利通號)라는 화물 및 여객을 실어 나르는 배를 가지고 있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의 청국의 패배와 1910년의 한일합방의 여파로 청상(淸商)의 경제가 저조해 지면서 인천은 동향(同鄉)으로 구성된 남·북방 상인중심 사회에서 1920년대부터는 점차 북방인인 산둥인 쿠리(苦力)사회로 변화해갔는데²¹⁾ 적어도 1930년대 중반까지는 광둥·남·북방(廣東·南·北幫)과 같은 동향(同鄉)으로 이루어진 결사체들이 서로 경쟁과 협력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직업적으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남방은 순전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주로 무역상에 종사했고, 북방계는 산둥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많았으며 한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농사를 짓거나 옥(玉)이나 비단장사, 이발사, 요리사 등의 직업에 종사했다. 아래 <사례 1>에서 보듯이 당시 화교사회 결사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화교학교 운영에 대한 개입과정은 동향(同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사체의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사례 1> 1913~1914년에 광둥신회(廣東新會) 사람인 조우루이즈(周瑞芝)가 당시 중화회관(中華會館) 우측에 세운 ‘자강소학’(自強小學)이 이전에 세워졌던 ‘인천화교소학’(仁川華僑小學)과 병합이 되고 나서 화교

20) 장세운, 앞의 논문 216쪽.

21)李玉蓮, 『近代 韓國華僑社會의 形成과 展開』, 인하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86-99쪽.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당시 교장인 진칭장(金慶章)은 동향(同鄉)으로 나뉜 남·북방(南·北幫) 화교지도자(僑領)를 설득해서 모금을 해 당시 중화회관(中華會館) 뒤에 교실을 새로 지었다. 그러나 진칭장(金慶章) 교장 이임 후 1929년 남·북방(南·北幫) 학교 이사회의 의견이 달라 학교가 둘로 나누어지기에 이른다. 남방지도자는 학교가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인천화교소학’ 명의를 사용해 운영했으며 학생수가 100명을 넘었다. 북방화교지도자대표인 푸샤오위(傅紹禹)도 산동동향회(山東同鄉會)가 있던 현재 파라다이스 호텔 자리에 ‘노교화교소학(魯僑華僑小學)’을 설립한다. 노교화교소학은 처음에 학생은 30여명이었으나 학비를 무료로 했기 때문에 학생 수가 불어나 2년 후에는 2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남방에서 설립한 인천화교소학의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자 설립한지 5~6년 이후인 1934~1935년 경 다시 한 학교로 합병한다(杜書溥, 『仁川華僑教育百年史』, 2001, 26-29쪽).

위의 <사례 1>을 보면 청상(淸商)과 그들의 가족이 증가하면서 대두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화교 학교는 인천에만 세 곳이었다. 이 학교들은 모두 동향(同鄉)을 중심으로 모인 단체에서 세운 것이며 1930년대 중반 학교가 하나로 통폐합될 때까지 이합과 집산을 거듭했다. 차이나타운의 나이 많은 화교들은 예전에 남방회관과 북방회관이 있었는데 남방회관은 비교적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북방회관은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과거를 기억한다. 또한 남방화교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고집했으며 문화적 자존심이 컸으나 그들이 점차 한국을 떠나 세(勢)가 줄어들게 되면서 북방화교인 산동인들과 ‘민지 못할’ 한국인들 사이에서 심한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합집산을 거쳤던 화교들은 1945년부터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단일한 집단에 속하게 된다.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으로 분할 점령되면서 남한화교와 북한화교 라는 두 집단으로 나뉘게 되고 미군 통치하의 남한에서는 중화민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화교사회가 편성되어 갔다.²²⁾ 특히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한국 정부가 중화민국 정부를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는 중화민국 대사관에 중국인으로 등록을 한 중국인만이 체류할 수 있었다. 남한의 경우 이미 해방 이후인 1947년부터 당시 중국의 총영사였던 리우위완(劉馭萬)에 의해 48개 지역의 자치구로 행정조직화가 진행되고 있었다.²³⁾ 중국사회의 전통적인 행정조직을 한국 화교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킨 이 자치구 조직은 종래의 중화상회나 동향회조직과는 별개의 조직이었으나, 1950년 6·25이후 자치총회와 기존 상회 연합회 조직을 합쳐 피난지 부산에 ‘여한화교단체연합사무처’(旅韓華僑團體聯合事務處)를 설립한 후부터는 행정적인 업무와 상업업무가 동시에 관할되었다. 또한 한국전쟁 후인 1954년 당시 중화민국 총영사관에서 ‘화교 거주허가증’(華僑居住許可證)을 발급하게 되면서부터 남한 화교들은 자연스럽게 중화민국 국민이 되었고²⁴⁾ 거주국인 남한의 계속된 분단 상황으로 인해 화교들은 이념적으로도 남한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화민국 정부의 인정과 지원을 받는 화교자치구 혹은 1962년 8월 이후에 명칭이 바뀐 화교협회는 화교사회에서 가장 권력이 있고 정치적으로 통합된 단체일 수밖에 없었으며 화교협회 소속의 기타 자치단체들 역시 반공(反共)

22) 왕은미(王恩美), 「미군정기의 한국화교사회: 미군정·중화민국정부·한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7(1), 현대중국학회, 2005, 91쪽.

23) 전국을 갑(甲), 보(保), 구(區)의 행정 단위로 나누었던(박은경 1986: 160) 이 보갑제는 대만(臺灣)에서 먼저 1951년(民國40年) 촌리린(村里鄰)제로 바뀌었으며 한국에서도 한국주재 중화민국대사관이 1969년(民國 58년) 1월 4일 ‘여한각지화교협회조직통칙’을 발표하면서 리린제(里鄰制)로 바뀌었다(台灣省各縣市實施地方自治綱要 홈페이지[<http://www.fayixing.com/lawcontent.jsp?id=140688>]; 한국인 천화교협회 앞의 책; 한국한성화교협회 홈페이지[<http://www.crask.or.kr>] 참조).

24) 박상순, 『在韓中國人の 法的地位에 관한 研究: 臺灣系中國人을 中心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9-19쪽.

한국 화교사회의 정치적 조직과 역동성-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등의 구호를 내세운 단체로 조직될 수밖에 없었다.

<표 2> 인천화교협회의 조직 및 업무(2004년 현재)²⁵⁾

조직제도	이감사제(理監事制)로 운영된다. 교민대회(僑民大會)를 통해 이사(理事) 15인, 감사(監事) 5인 선출. 이사 중 호선(互選)에 의해 1인이 회장. 회장은 지명에 의해 3~5인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감사 중 호선에 의해 1인의 감사장을 둔다. 이사회 아래에는 총무, 교무(僑務), 외무, 요식업, 청년, 부녀(婦女)의 6과를 두며 별도로 조해위원회(調解委員會)를 둔다.
관할구역	리린제(里鄰制). 전체를 7개의 리(里)와 54개의 린(鄰)으로 나누며 정·부(正·副) 리장(里長)은 교민(僑民)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리린(里鄰)의 사무는 화교협회에서 담당한다(관할구역은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 등지가 포함된다).
경비(經費)	각 행업(行業)의 회비 납부 및 15세 이상의 남녀 교포의 회비(매월 500원), 각종 증명서 발급수입 등으로 충당.
업무	① 리린(里鄰)사무 추진 및 지도감독 ② 화교호적의 조사통계 ③ 화교의 복리사업 추진, 공상(工商) 및 각 음식업 등 유관사항 처리 ④ 화교 변리(辨理) 및 중국문화 선양 ⑤ 교포사회의 분규조정 ⑥ 한국 유관당국의 요청 처리 ⑧ 교포의 단결, 화교의 복리증진, 국민외교에 중점, 중한우호 달성 ⑨ 공익자선사업 추진, 노약자·교아·과부·가난한자에 대한 구제

그동안 화교협회의 임원들은 화교사회에서 신망을 받는 자이며 재력이 있고 미군과의 관계나 중화민국 정부와의 관계, 거주국의 경찰서와 같은 관공서들과의 관계에서 조율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즉, 화교들에 있어서 회장의 능력은 외부기관과의 관시망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정하는가에 달려있었다. 인천 화교들의 기억 속에 1951년~1956년까지 인천화교협회의 전신인 인천화교자치구의 책임자였던 뤼지즈(呂季直) 씨는 주물공장을 운영한 재력가이며 영어를

25) 출처: 韓國仁川華僑協會, 앞의 책 및 인천화교협회 내부자료.

잘했고 근방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과의 관계가 좋아 소실된 화교학교를 재건할 때 미8군의 지원을 받아낸 뛰어난 지도자로 남아있다. 이밖에도 공화춘 사장이었던 위홍장(于鴻章), 중구 경동에 있던 대형 중국 음식점 평화각의 사장이었던 조우다유(周大有), 과거 중앙동의 중화루 사장인 양젠민(楊鑑珉) 씨, 인천시와의 협상을 통해 부평 공동묘지에 중국인 전용묘지를 조성한 H씨 등은 화교사회의 대표적인 재력가이며 화교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당시 중화민국 대사관과 인천의 각종 관공서들과의 친분을 통해 화교사회를 발전시킨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화교협회 회장의 실제적인 가장 큰 책임은 대사관이나 한국의 출입국관리소, 경찰서, 구청과 같은 인천의 각종 관공서들과의 친분을 지속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주로 외부 인사들에 대한 식사초대(請客) 혹은 ‘멕이기’를 통해서였다. 식사초대를 뜻하는 중국어 ‘칭커’(請客)는 사전적 의미로 ‘손님을 초대하다’, ‘한턱내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술을 같이 마시며 초대한 사람이 음식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뜻하는데²⁶⁾ 이것을 화교들은 한국어 표현으로는 ‘멕인다’(먹인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관공서의 책임자가 바뀌었을 때 화교들은 “×× 한 번 멕여야지” 라고 말한다. 이것은 바뀐 책임자를 불러 음식과 술을 함께 나누고 협회의 일과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 제언을 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한편

26) 같은 의미로 ‘자오다이’(招待), ‘지에다이’(接待)라는 말도 자주 쓰이나 엄밀하게 분류하자면 이 세 가지 단어들은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지에다이’(接待)는 식사의 의미보다는 ‘마중 나간다’는 의미로 많이 쓰며, ‘자오다이’(招待)는 식사에 사람들을 불러와 모신다는 뜻이 있다. 따라서 ‘자오다이’(招待)했다고 해서 반드시 초청한 사람이나 기관에서 식사비를 모두 지불하는 것은 아니며 누가 낼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손님들을 모셔와 식사를 하다가 주최자가 “오늘 저녁은 내가 ‘칭커’(請客)한다”고 하면 주최자가 식사비를 모두 부담한다는 뜻이 된다.

으로는 이익을 얻기 위해 공직자에게 향응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친한 사이가 아니거나 특히 한국인들 앞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다. 화교들이 거주국에서의 원만한 생계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활동 중 하나인 ‘칭커’는 화교들이 인지해온 모국(母國)의 기본 원리들인 관시(關係), 런칭(人情), 미엔쯔(面子), 바오(報)가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화교협회 대표들은 외부 단체의 임원들에 대한 식사초대를 통해 관시를 강화해왔으며 런칭의 교환 및 바오를 기대하고 유도한다. 또한 권력기관들의 대표자와의 교류를 통해 화교협회 회장은 대외적으로 미엔쯔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이주자 사회인 화교사회의 경우 거주국의 관공서와의 친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으며 칭커 혹은 ‘멕이기’를 통해 이를 확보해왔다.

2. 한중수교 이후의 변화양상

그러나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와 그에 따른 화교들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화교협회의 입지는 점차로 좁아지게 되었다. 1992년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합법정부로서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정부를 승인하고 그동안 오랜 우방이었던 ‘중화민국’(中華民國)과 단교하게 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1992년 대만과의 단교 및 한중수교 당시 신문기사들은 “韓中수교로 갈등 겪는 華僑”²⁷⁾, “華僑학교 ‘눈물의 수업’”²⁸⁾ 등을 통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화교사회에서의 불안감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화교들은 한중수교에 대해 덤덤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으며 중국과의 수교를 통해 생

27) 『중앙일보』 1992년 8월 22일자.

28) 『중앙일보』 1992년 8월 24일자 「華僑학교 ‘눈물의 수업」.

활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이제 화교들은 그동안 중국과 한국과의 적대관계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좀처럼 꺼내지 못했던 ‘고향’(故鄉)에 대한 향수(鄉愁)와 관념들을 공동체 외부에도 자유롭게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화교들의 이러한 변화는 한중수교로 인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었다. 정식으로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양국정부차원에서 비공식적인 교류 및 간접교역이 상당수 있었지만 화교들 중에도 이미 고향방문 겸 사업차 홍콩을 경유해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많아 어느 정도 중국 및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정세를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화민국과의 단교와 중국수교는 화교협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화교협회의 존립자체가 중화민국정부의 절대적인 지지와 지원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2년 이후 화교들의 인식 속에서 화교협회는 점차 서울의 대만 대표부를 오가며 호적등본이나 결혼증명서 발급업무를 대행해주는 말단 행정기관이나 쓰이는 곳도 제대로 알 수 없는 회비나 걷는 곳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특히 2002년 4월에 한국의 출입국관리국 관리법이 개정되어 화교들에게 영주권(F-5)이 부여됨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체류자격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러 화교협회에 갈 필요가 없어진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동안 화교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시청이나 구청과 같은 관공서들도 중국대륙과의 우호를 중요시하는 정부의 외교정책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화교협회보다는 성격이 다른 조직과의 접촉을 원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관공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만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온 화교협회 조직으로는 밀려드는 중국대륙과의 교류관계에서 도움을 얻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차츰

인천화교협회는 대만 대표부와 관계된 업무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을 오가며 화교들이 중국본토 방문에 필요한 통행증(1년 기한)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도 대행해 주기 시작했다. 인천 화교협회 역시 국제정세 및 거주국의 이념과 정책의 변화 그리고 화교사회에서의 인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조직의 체제와 역할 그리고 이념의 개편을 모색해나가야만 하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한·중 간에 정식으로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변화된 양상 중 화교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게 된 대표적인 것은 각 지역 화교대표자들에게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에 중국 대륙의 수많은 정치·경제계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전국에서 초청된 화교들은 주로 서울의 신라호텔 등 고급 만찬회장에서 청와대의 공식행사를 마친 중국 지도자들을 맞이했고 같이 식사를 하고 기념촬영 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국가 단위의 방문뿐 아니라 각 지역 단위 인사들의 한국방문도 이어졌다. 당서기(黨書記), 시장(市長), 성장(省長), 부성장(副省長)과 같은 중국지방정부의 간부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롯데호텔이나 신라호텔과 같이 크고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일이 많아진 것이다. 이때 특히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화교들이 초청받아 가며 주최 측에서는 설명회가 끝나면 초청된 화교들에게 저녁에 ‘한턱’을 낸다. 그런데 대개 두 번 정도 식사를 대접받게 되면 화교들이 한 번 정도는 지방정부 간부들에게 식사를 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런칭(人情)이라서 식사를 대접 받았던 화교들은 각각 8~10만 원 정도를 각출하여 방한한 중국 간부들에

게 다시 식사를 대접하게 된다. 식사를 대접받은 중국 간부들은 화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대개 중국으로의 초청을 약속한다. 실제로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간부들은 화교들에게 감사편지와 함께 중국으로 한번 놀러 오라는 권유를 하며 이러한 초대 과정으로 중국 본토에 들어간 화교들은 환영행사는 물론 풍성한 식사대접을 받게 된다. 한중수교 후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칭커 교환체제는 화교들의 중국 방문 및 중국 인사들과의 친분을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촉매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화교들 중에는 개인의 사비를 털어 접대를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초청을 받아도 행사에 가지 않기도 한다.

개인차원뿐 아니라 화교협회와 같은 조직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국의 중화민국 정부와의 단교 이후 대만 정부 관리들의 공식적인 한국방문의 횟수가 줄어들고 중국 대륙 관리들의 방문이 늘어난 것이다. 과거 중화민국과의 수교가 있었던 1992년 이전에는 화교협회에서 방한한 중화민국 관리들의 식사초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한국화교들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대를 받은 관리들은 식사비를 모두 자신들이 부담하거나 나중에 중화민국 대사관에서 충당해 주었다고 한다. 더욱이 단교 이후에는 한국과의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오게 되어 화교협회와 같은 단체에서의 대만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접대부담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중국 본토에서의 관리들의 방문은 달랐다. 중국본토 관리들에 대한 식사초대 비용을 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화교협회에서 부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식사초대는 모두 단체 차원이 아닌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물론 두 차례 정도의 식사는 방한한 중국본토 관리들이 부담하지만 나머지 한

끼는 개인 부담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과거 인천화교협회 회장 중에는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무리해서 중국식 계인 후이(會)²⁹⁾까지 조직했다가 값을 능력이 되지 않자 한국을 갑자기 떠나버린 경우도 있을 정도로 수시로 입국하는 중국 본토의 관리들을 접대하는데 있어서 협회 임원들의 부담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화교협회의 운영방안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하위 부서에 두자는 논의가 협회 임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의 지방정부들 역시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지방정부들과 활발한 교류를 시작했다. 인천시 및 중구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이후 송도개발 및 차이나타운의 관광자원화 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그 방안의 일환으로 중국의 도시들과 우호도시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투자 및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처럼 시 정부와 구 정부의 활발한 중국과의 교류로 인해 중국 지방정부의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중구청을 공식 방문하기 시작했으며 중국 및 인천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잇따라 개최되었다. 이들 중국의 지방정부 인사들이 방인(訪仁)하게 되면서 지방정부는 공식적인 행사 및 식사접대를 위해 중국의 언어와 문화가 익숙한 인천 내 거주 화교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화교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지방정부와 화교들과의 공식적인 통로로 1990년대 중반 당시로는 인천화교협회 밖에 없었으며 인천의 지방정부 관리들 입장에서는 과거 중화민국 정부(현 대만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인천화교협회를 통해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 적당하거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29) 중국식 계인 후이(會)에 대해서는 이창호, 『한국 화교(華僑)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공간: 인천 화교의 관시(關係)와 후이(會)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4(1), 2008, 75-122쪽을 참고할 것.

이것은 방인한 중국 관리들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과거 중화민국의 고위관리들이 오면 통상적으로 식사를 하러 가게 되는 중앙동의 ‘중국성’(가명)과 같은 대형 중국음식점에는 방인한 중국 관리들이 절대로 가지 않았는데 그것은 음식의 맛이나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요리점의 대표인 Y씨가 ‘중화민국 행정원 교무위원’(中華民國行政院僑務委員), ‘중화민국 국민당 평의위원’(中華民國國民黨評議委員)과 같은 중화민국 내 정부 및 당정기관의 고위관료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³⁰⁾

또한 한·중 교류가 점차 확대되면서 전 국민의 중국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2002년부터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시작된 한중수교 10주년 기념 행사와 같은 정치적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지방정부들은 친대만계로 알려진 인천화교협회와 일을 같이 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지방정부에서는 암암리에 화교들에게 친중국계의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기 시작했다.

II. 한중수교 이후 화교사회의 정치적 변화

1. 친중국계 정치조직의 출현 및 전개과정

한국의 화교사회에서는 한중수교 10주년이던 2002년을 전후로 그 동안 대만 대표부의 지원을 받아왔던 화교협회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치조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2002년 2월 14일 친중국계인 한성중국교민협회(漢城中國僑民協會)가 새롭게 발

30) 현재 이 요리점은 전 주인이 매각하면서 주인이 바뀐 상태다.

족했으며 동월 23일에는 한성중국교민협회 측이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며 한화중국화평통일촉진추진위원회(韓華中國和平統一促進推進委員會)를 발족시켜 인천을 비롯한 지역 지부들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³¹⁾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 해 12월 뜻있는 인천 화교 40명을 주축으로 한 인화중국화평통일촉진회(仁華國和平統一促進會, 이하 ‘촉진회’[促進會]로 칭함)가 발족되었다.³²⁾

이 단체는 비록 독립지위이기는 하지만 인화중국화평통일촉진회(仁華中國和平統一促進會) 창립총회에서 중국대사가 밝힌바³³⁾와 같이 최근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굳히기 위한 독립 추진 움직임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해온 중국정부의 반대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인천 화교사회에서 촉진회의 창립은 ‘친중국’(親中國)으로 비쳐졌으며 나이 많은 화교 노인들과 대만에 가족과 친지가 있는 화교들은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은 대개 ‘의리가 없다’고 달가워하지 않았고 대만에 가족과 친지가 있는 화교들은 이 모임에 연관될 경우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기도 했다.

31) 김기호, 『초국가 시대의 이주민 정체성: 한국화교의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5, 32-34쪽.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한국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4, 98-99쪽.

32) 중국화평통일촉진회(中國和平統一促進會)는 1988년 9월 22일에 중국통일을 찬성하는 각계인사들이 베이징(北京)에서 자원적으로 결성한 독립법인지위의 비영리 사회조직이다. 이들의 목표는 ‘① 중국의 평화통일을 옹호하고 국내외의 모든 동포를 단결하고; ② 대만해협 양안(兩岸)의 민간교류와 왕래를 촉진하며; ③ ‘대만독립’(臺灣獨立), ‘두 개의 중국’(兩個中國),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中一臺) 등 중국을 분열하는 활동에 반대하고 일찍이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中國和平統一促進會 홈페이지

[<http://www.zhongguotongcuhui.org.cn>];

中國網[<http://www.china.com.cn/chinese/TCC/haixia/463731.htm>].

33) 『인천일보』2002년 12월 12일자 『인천화교 中 평화통일촉진회 창립총회』.

그러나 인천 화교들의 축진회의 설립 배경은 외부사회에서 인식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 애당초 이 모임은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그동안 친대만계로 알려진 인천화교협회에 의뢰가 들어왔다고 한다. 어차피 인천 화교들도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축진회의 취지에는 많이들 공감을 했던 터였으며, 친대만계로 알려져 한중수교 이후 한국의 관공서들이 기피했던 것과 방한한 중국 본토 인사들에 대한 식사접대(請客) 문제로 고심하고 있던 화교협회 측에서 보면 이러한 새로운 조직의 설립은 반가운 일이었다.

창립총회 후 축진회는 보름 만에 현관이 누군가에 의해 새벽에 뜯겨나가는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 인천 화교사회 내에서 “친중국하면 패스포트(여권)를 몰수당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차이나타운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화교의 도움으로 저렴하게 건물을 임대할 수 있었으며 비교적 순조롭게 인천사회에 정착하는 듯했다. 지방정부들에서는 축진회 측에 한 달에 최소한 5명이 넘는 방인(訪仁)한 중국 인사들에 대한 접대를 같이 하자고 요청했으며 2003년 10월 3~5일간 차이나타운에서 열린 ‘제 2회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 부터는 축진회와 인천중구문화원이 행사를 공동 주관하도록 했다.

그러나 창립한 지 2년도 못되어 축진회 회장인 S씨가 물러나고 대행자가 회장 일을 맡기 시작했다. S씨가 더 이상 자기의 돈을 써가며 축진회를 운영할 수 없다며 자진해서 사퇴를 했다는 소문과 회장 개인이 공금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축진회 내의 부회장과 감사장 등의 임원들이 S회장을 밀어냈다는 소문이 화교사회에 돌기 시작했다. 소문의 내용은 국내외 여러 단체의 성금으로 모인 축진회 기금이 6,6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연말 결산을 해보니 회장 마음대로

1,000만 원 이상 지출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지출금은 지방정부 및 축진회를 방문한 중국 인사들의 식사초대에 든 비용이었다. S회장은 인천을 방문한 중국 인사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요리점으로 식사초대를 했으며 그 식사비를 자신이름으로 된 축진회 운영비 통장에서 꺼내어 썼던 것이다. S회장은 단체의 예산에서 식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축진회 내의 다른 성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우리 축진회는 돈 들어올 구멍은 없어요. 수익이 없는 단체입니다. (직원들은) 전부 다 자원봉사입니다. 차비도 지 돈(자기 돈) 내서 일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많은 수익을 냈으면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자원봉사를 하겠습니까? 돈 달라고 하지...(W씨, 남, 45세, 제2대 축진회 회장, 한의원 원장).

축진회의 대다수 성원들은 한국사회에서 태어나 생활하고 교육을 받아왔으며 보편적 합리성을 익히면서 기성 화교세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젊은이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S회장의 행동은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W씨는 화교3세대이다. 즉, 19세기 말에서 일제 강점기까지 한국에 최초로 입국한 화교들이 1세대라면, 2세대 화교는 중국대륙과의 단교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하고 한국에 정착하면서 한국사회의 억압과 차별을 고스란히 겪은 세대이다. 화교 3세대는 직접 차별을 겪지는 않았으나 부모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고 큰 세대이다. 특히 이 세대 가운데 한의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데 이것은 이민자 집단에 대한 누적적이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고용기회의 불안정 등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낳게 된 사례이다.³⁴⁾ 1960~1980년대 당시 외국인

34) Portes, Alejandro, "Economic Sociology and the Sociology of Immigration:

신분으로 한국사회에서 기업체나 공무원 사회에 편입되기 어려웠던 화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영업, 특히 음식점 밖에 없었으며 다른 직종을 선택하려면 대만이나 미국으로 유학하거나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말 한의대 신설 붐이 일면서 대학에서 화교 학생들의 한의대 특례 입학에 허용하기 시작했다.³⁵⁾ 교육에 대한 열성적인 부모들 덕에 당시 입학했던 화교 학생들은 졸업 이후 실력과 재력을 겸비한 한의사가 되어 화교사회를 이끄는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³⁶⁾ W씨의 경우도 1970년대 말 한의대에 특례로 입학해 한의사가 된 경우이다. 이들 세대는 부모세대의 고통을 인정하지만 부모세대의 낡은 사고와 생활방식을 부정하며 부모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 인천 차이나타운 사례의 경우 새로운 세대가 포함된 차기 운영진들은 S회장을 포함한 기성 화교세대가 멀고 원대한 목표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위신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하나의 자기의 자기가 이득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거지...‘감투’..(즉) ‘나 XX회 회장(이다)’..그러니까 순수한(순수한) 의미에서의 내용은 없지요. (중략) 짜장면 장사하는 사람의 두뇌회전하고 사회 물 많이 먹은 사람의 두뇌회전이 틀려요. 사회를 보는 시각이 틀리거든요. 우리는 비전(전망)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 보더라도 비전을 보고 합니다(W씨[45]).

A Conceptual Overview”, Alejandro Portes(ed.),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5, pp. 17-19.

35)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각 대학의 한의학과는 인기학과가 되어 특례 입학이 거의 사라졌다.

36) 한국 화교의 자녀 교육 및 화교자녀들의 1970년대 말 한의대 입학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창호, 「한국 화교의 공간인식과 이주성(移住性): 조상숭배관념과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Homo Migrans』2, 2010, 115-136쪽을 참고할 것.

축진회 조직은 이익이 아닌 순수한 목적 및 이념지향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화교사회에서 주로 만들어졌던 종족(宗族)이나 동향(同鄉), 동사(同事) 등으로 구성된 배타적으로 집단 내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과는 성격이 다르며, 자발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귀속적 성격을 가진 화교협회 조직과는 달랐다. 따라서 일정한 목적이나 이념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결합된 이들 성원들은 회장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식사초대비용을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었으며 합리적인 규칙과 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축진회의 교육받은 개혁적인 화교들은 기성세대의 관념을 한마디로 ‘짜장면식 계산’이라고 잘라 말한다. ‘짜장면식 계산’이란 화교들이 자장면을 만들어 팔 때 음식점 주인이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를 비꼬아서 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30명분의 예약이 들어왔다면 음식점 주인은 30명분을 다 준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30명의 예약이 들어왔다고 해도 실제로 30명 모두 음식점에 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30인분을 준비했는데 예약보다 손님이 적어 25명이 왔을 경우 준비한 나머지 5인분의 음식 값을 예약한 손님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점 주인은 5인분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자장면의 경우 시간이 지나 면(麵)이 붙어 버리면 보관해두었다가 다음에 쓸 수도 없어 그냥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손실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음식점 주인은 일단 20명분 정도만 준비해 놓고 상황을 봐가면서 음식을 가감(加減)한다.

이와 같은 ‘짜장면식 계산’은 화교들이 거주국의 상업 활동에서 채택해온 오래된 계산법이며 마치 일상생활처럼 되어버린 문화이다.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이주한 사회에서의 일종의 생존전략인 셈이

다. 이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은 절대로 손해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화는 특히 이민족에게 배타적인 정책을 펴왔던 한국 사회에서 화교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기도 했다. 그러나 개혁성향의 화교들은 보다 큰 미래의 희망을 위한 자신의 희생보다 개인의 단기적 이익에만 치중하는 부모나 친지들의 모습에 많은 실망을 해왔다. 이제는 화교들이 부모세대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젊고 개혁적인 화교들이 가져온 생각이다. 더구나 축진회와 같이 새로운 개념의 공동체조직의 경우 기존의 체제와 문화로는 처리할 수 없는 실제적인 행정상의 문제들이 점차 생기기 시작했다. 축진회가 만들어진 후 지방정부들에서는 한·중 간의 교류 행사에 대해 축진회가 주관하도록 행사를 맡기고 예산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예산지출에 대한 결산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화교들의 ‘짜장면식 계산’과는 달랐으며 잘못될 경우 조직에 대한 지방정부의 신뢰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즉,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는 철저히 결산해서 지방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과거 화교조직의 관행처럼 조직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예산집행의 불투명성에 의존해서는 지방정부의 요구들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었다. 축진회의 S회장과 같이 지도자가 통장을 관리하면서 ‘짜장면식 계산’과 같이 불투명한 회계방법을 써서는 한국 관공서의 요구에 맞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그동안 기존의 화교사회의 문화에 익숙한 S회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만 경제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대를 이어 음식점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익과 손해에 대한 개념이 명백한 S회장의 입장에서는 단체에서 공공적인 일을 하는데 회장 자신만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다소 억울한 면이 있었다.

내가 대사관에다 이런 얘길 했어요. 내가 회장인데 회장이란 직책은 주머니 털어서 한두 번이지 자꾸 주머니 터는 것도 부담이 간다. 그럼 중국 대사관 측에서 기금 좀 내려줘라.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기금 좀 쥐야 될 것 아니냐.(중략) (대사관 임원이) 술 한잔 먹고 하는 얘기가 색깔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대만은 금전외교를 하는데 우리 중국대사관은 그런 것 없다.” (내가) “그래? 당신 그런 얘길 했으니까 나 당장 때려치겠다. 아니면 그런 얘길 하질 말던가. 내가 회장이 되가지고 날마다 주머니 털어야 되냐? 그건 내가 못한다. 내가 때려치겠다.”(중략) 그렇게 된 거예요(S씨[51]).

결국 S회장은 축진회를 사임하고 젊은 한의사인 W씨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축진회는 의욕을 가지고 새롭게 재출발을 다짐했지만 곧바로 축진회 내에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는 못했다. 축진회는 영리가 아닌 순수한 목적을 가진 봉사 단체였고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금의 조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식사초대비로 충당할 예산의 마련이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회장이 수시로 방인하는 외부인사를 접대할 시간을 내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곧이어 인천 화교사회에서는 서울 화교단체 쪽에서 축진회에 대해 지원이 줄기 시작했다는 소문과 새로 취임한 회장이 한의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식사초대 등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어 축진회의 성과가 부진하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진략) (축진회 회장) 승계는 W씨, 한의원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사회 경험 하나도 없고...중국 대사관(에서) 회의 참석해서(참석하라고) 나와라(나오라고 하거든)..일요일 빼고..(그런데) 그 사람 의사(한의사)기 때문에(일요일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 대사관(에서) 일요일엔 절대 초대 안 해요. 평일 돼야 돼. (대사관에서) 나와라..나와라 해서(해도)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한 번도 안 나오고(나오지 않으니까) (축진회로)들어오는 돈 하나도 없지....(C씨, 전 축진회 임원).

결국은 새로운 이념을 표방하는 조직도 화교사회의 그동안의 두터운 관행과 일정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 및 협상과 재조정 과정은 화교사회의 계속적인 실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화교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³⁷⁾ 인천 화교사회에서는 그동안 마을 단위의 결사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결사체에서 표방하는 목적보다는 타 조직과의 관시를, 합의된 운영원칙보다는 조직 리더의 도덕성을 더 중요시해왔다. 그런데 이 ‘도덕성’은 모순적이어서 표면적으로는 리더가 조직을 통해 일종의 장사처럼 이익을 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한편으로는 리더가 됴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 따라서 리더의 도덕성의 평가는 그가 얻는 이익이 일반적인 런칭(人情)의 수준에서 용납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가늠하게 된다. 이러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리더들은 월회비나 기부금을 다른 임원들보다 더 많이 냈으므로써 자신이 조직에서 이익을 얻지 않고 헌신한다는 모습을 내보이면서 리더 자신이나 단체에서 쓰는 지출에 대해서는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왔다. 그러나 최근의 새로운 이상(理想)을 추구하는 세대들은 장기적이고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나 성원들이 진정으로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하며, 합의된 운영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상업적이고 전문적인 한의사 등의 직업에 종사해 온 새로운 세대 및 계층의 사고방식은 특히 공동체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이제까지 대를 이어 음식점 경

37) 인천 화교사회의 최근의 큰 변화 가운데 2010년의 화교협회 회장단 교체 예를 들 수 있다. 새로 선출된 회장은 부품교역을 하는 일반 기업체 대표이사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주물공장이나 요식업, 식재료 도매업 등에 종사하는 화교가 협회회장이 되어왔던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젊은 세대에 의한 변화를 기대하는 화교사회 내의 근래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영과 같이 소규모 상업 활동을 해온 기성세대적인 사고방식과 미묘한 층들을 야기한다. 이것은 1949년 중국대륙과의 단교이후 이주가 아닌 자연증가에 의해 지속된 화교사회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의 문화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지역조직과 글로벌 조직의 연계와 그 의미

화교들의 단체 내의 차이와 층들은 지역단위를 넘어선 보다 광범위한 수준의 공동체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적용된다. 2005년 10월 9일부터 4일간 서울의 코엑스에서 제8차 세계화상대회(第八屆世界華商大會)³⁸⁾가 열렸다. 세계화상대회는 세계 화교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 및 이익증진을 위해 세계 각지에 있는 화상(華商)들이 매 2년마다 한자리에 모이는, 일종의 ‘경제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적인 행사이다. 전 세계 32개국에서 3,569명의 화상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당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할 정도로 규모가 컸던 이 화상대회를 주최한 단체는 바로 한국 화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韓國中華總商會, K.C.C.C.I)였다.³⁹⁾ 그런데 전 세계 화교들의 축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화상대회에 대해 인천 화교사회의 반응은 이상할 정도로 냉담했다. 세계화상대회가 열리기 몇 개월 전부터는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소문이 인천 화교사회에 돌기도 했다. 얼마 후 행사가 확정되었고 인천화교협회와 각 화교인

38) 세계화상대회는 싱가포르 리관유(李光耀) 총리의 제안으로 1991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각국 중화총상회(中華總商會)의 주최로 2005년 현재까지 8회째 개최되었다.

39) 한국중화총상회는 1999년 5월 최초로 정부로부터 공식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한국화교경제인협회로 시작되어 활동을 하다가 2004년 2월 26일 국내 5,000여 화교 상공인들이 가입한 한국중화총상회로 명칭을 바꾸어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한국중화총상회 홈페이지[<http://www.kccci.or.kr/>]).

사들 앞으로 초대장이 배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행사에 인천화교협회 임원들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행사기간 중인 10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던 대만의 건국기념일인 쌍십절(雙十節) 행사에는 초대받은 인천화교협회 임원들 및 인천지역 화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인천 화교들에게 있어 세계화상대회의 성격이나 목표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우선은 세계화상대회를 주최한 한국중화총상회의 회장인 Y(48)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했다. Y씨는 한국에서 한의대를 졸업하고 부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출신이다. 특히 인천 화교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 인천에 동창들과 선후배들도 많았고 부천의 명성도 있어 인천 화교들에게 비교적 신망이 두터웠다. 그러나 1998년 인천시의 송도 차이나타운 개발 사업에 한국화교경제인협회(2004년 중화총상회로 바뀜) 회장인 Y씨가 참여하면서 인천 화교들의 신용을 다소 잃게 되었다. 인천시가 송도신도시(현 송도경제자유구역)에 10만 여 평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겠다고 1999년 호주에서 열린 세계화상대회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하기도 했으나 결국 무위에 그치고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었기 때문이다.⁴⁰⁾ 같은 화교이며 동향출신에다가 동학으로 관시망이 구축되어있던 Y씨는 인천지역 화교들에게 가입비를 내면 나중에 평당 40만원 썩 땅을 살 수 있다고 설득했고 인천 화교들은 한껏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투자자본 유입이 불투명해면서 계획이 무산되었고 인천 화교들은 남부한 가입비조차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인천 화교들은 송도 차이나타운 계획의 무산이 Y씨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인천시가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

40) 『문화일보』2004년 4월 26일자 「영종 차이나타운 현실성 논란 - 화교자본 유치 불투명...개발 중복투자 걸림돌」.

면 세계화상대회도 전적으로 정부나 기업이 계획을 세워 운영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Y씨가 한의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재산은 수 십억이 있을지 모르나 동남아나 세계 전체의 화교들을 상대해서 칭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계획과 운영은 한국 정부나 기업이 했을 것이며 Y씨는 행사조직의 리더라기보다는 일종의 중개인 역할 밖에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나 대기업을 행사조직의 리더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인천 화교가 이 행사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천 화교와 관시가 없는 정부나 대기업들이 주도했다면 당연히 초청한 해외화교들도 자신들과 관시가 없는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화상대회에 참여한 화상들은 한국 화교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중국 산둥성(山東省) 출신 화교들이 아닌 저장성(浙江省)이나 광둥성(廣東省) 등지의 남방 화교 출신들이었다.

내가 화교들과 관계없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실 세계 화상대회 화교들 그 사람들(과)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 알아요?(K씨, 화교협회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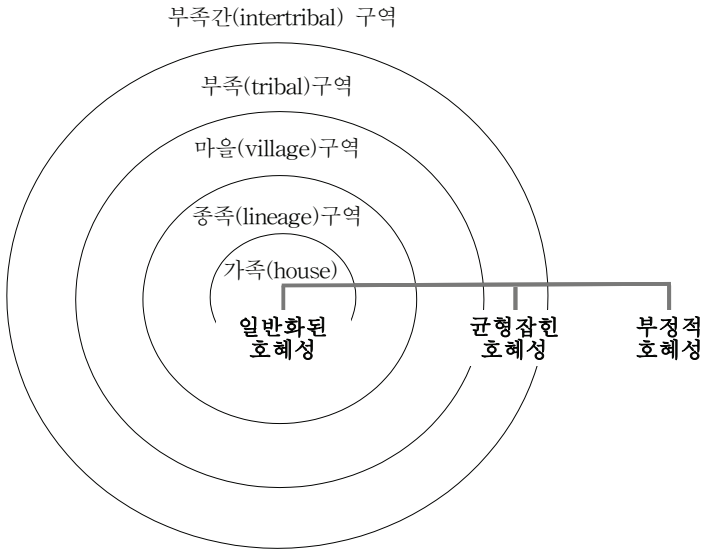
인천 화교들은 세계화상대회가 성공하려면 화교들과 관련된 단체가 주도적인 위치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한국중화총상회든 인천화교협회든 중국대사관이든 실질적인 리더가 나서서 세계화상들과 교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말하는 실질적인 리더란 세계화상들을 접대하기에 풍부한 자금력과 넓은 관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단 중국대사관의 역할도 빠질 수 없지만 대사관은 구조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화교사회의 공동체 조직들은 한국사회의 특수한 이

념과 가치관 그리고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적응해왔다. 한국사회가 반공이데올로기를 고수하던 1992년 전까지 화교들은 대만이 유일한 조국이었다. 그러나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화교들은 또다시 새로운 적응방식을 찾아야 했다. 그동안 대만과의 정치적 연결고리이기도 했던 화교협회 이외에 새로운 성격의 공동체 조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 조직들은 새로운 이념과 가치관을 표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조직들은 내부의 실제적 운영원리에서까지 기존 화교사회의 문화적 원리를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원리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도 아니었다.

화교사회의 정치조직들은 그동안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부침해왔지만 내부의 실제적 운영원리 만큼은 그동안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운영원리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은 화교사회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그동안 화교사회의 정치조직을 뒷받침해주었던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관시, 런칭, 미엔쯔(面子), 바오(報)로 대표될 수 있으며 칭커는 이들 운영원리가 종합적으로 실천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자본의 소유는 조직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 되었으며 이를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왔다. 즉, 화교사회의 정치적 지위는 사회자본의 소유 여하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큰 공장이나 식당을 가진 부자라고 해서, 한의사와 같이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조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사회자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지의 능력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되어왔다.

화교사회의 정치조직에 대한 좀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식사초대와 같은 이들의 중요한 실천과정들을 일종의 선물의 교환과정의



<그림 2> 호혜성과 친족 거주 구역들과의 관계⁴¹⁾

원리 즉, 호혜성의 원리로 환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호혜성은 바로 그동안 화교사회에서 관시, 런칭, 미엔쯔, 바오라는 개념으로 통용되어온 그것이다. <그림 2>는 살린즈(Sahlins)가 원시사회의 경제원리를 공간적으로 재현해놓은 것인데⁴²⁾ 이를 화교사회에 적용해본다면 화교사회 역시 전통적인 친족집단에서 생각해온 ‘일반화된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과 부족구역에서 나타나는 ‘균형잡힌 호혜성’(balanced reciprocity)이 가장 기본적인 정서로 인식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⁴³⁾ 여기서 교환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거리의 길이는

41) 출처: Sahlins, *Ibid.*, p.199.

42) Sahlins, Marshall, *Stone Age Economics*, New York: Aldine De Gruyter, 1972, p.199.

43) ① 일반화된 호혜성이란 애타적인 성격이 강한 거래를 지칭한다; ② 균형잡힌

교환의 양식(mode)을 결정하며 친족 거리가 특히 호혜성의 형식과 연관된다. 즉, 친족 범위에서 멀어질수록 호혜성은 일반화된 호혜성에서 점차 멀어져 부정적 호혜성에 가깝게 된다.

그런데 화교사회에 대한 분석에서 살린즈의 호혜성 모델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각 구역의 지도자들에 대한 지역 화교들의 기대감과 지도자들의 실천의 문제이다. 화교들은 그동안 부족과 마을을 총괄하는 화교단체와 같은 공동체 조직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균형잡힌 호혜성이 아닌 가족에서 통용되는 일반화된 호혜성을 요청해왔다. 이는 가족에 대한 감정과 정서로 사회를 통치하도록 요구해온 전통적인 유교적 정서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화교 공동체 성원들이 조직의 지도자가 절대로 이익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이상적인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나, 결사체 및 각종 공동체조직의 지도자들이 대외적으로는 자신이 이익을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은 바로 이러한 원리들의 작용 때문이다. 그동안 화교사회 정치의 외양은 비록 한국사회의 특수한 이념과 정책에 적응해오고 변해왔지만 그 내부에서는 별다른 변동 없이 이러한 원리가 구축되어왔다.

그러나 화교사회의 이러한 원리들은 1992년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그동안 고정적으로 유지해오던 거주국과 화교사회라는 기본적인 경계를 넘어 점차 다른 부족간, 국가간으로 그 폭이 확대되어 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조직 내부에서부터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살린즈의 호혜성의 도식대로라면 <그림 2> 처럼 전형적으로

호혜성은 직접적인 교환으로서,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과 등가성이 높고 서로를 공평하게 고려한다. 이 호혜성은 일반화된 호혜성보다 덜 인간적이지만, 보다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③ 부정적 호혜성이란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가장 비인격적인 관계를 뜻한다. 즉 자기 이해관계를 최고로 고려하며, 교환된 자원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부등가적이며, 보상의 즉각성이 매우 짧다(Sahlins, *Ibid.*, pp.193-196; 최종렬,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 『한국사회학』38, 2004, 107-109쪽).

부족간, 국가간의 관계는 자신의 이익이 먼저 고려되는 부정적 호혜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화교 집단들은 그동안 외부 집단에 대응해 자신 혹은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거주국 사회가 세계화, 개방화되면서 화교사회 각 조직들 및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일반화된 호혜성을 강조하는 원리들이 표방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원리는 과거처럼 조직의 지도자가 ‘이익을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던 것을 넘어서 투명한 원칙과 희생을 요구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한·중간, 세계 화상(華商)들 간의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한 장기적인 전망을 강조하는 이러한 새로운 결사체들의 원리들은 한의사와 같은 화교사회의 새로운 중산계층과 젊고 개혁적인 화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화교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체계를 흔들어 놓았다. 이에 대해 그동안 거주국의 억압과 차별 속에서 자신들만의 전통적인 공동체적 문화원리와 이익을 고수하며 생활해온 기존의 화교들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오지 않는 이들 공동체조직들과 지도자의 자리, 그리고 새로운 사고를 가진 성원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들은 여전히 관시와 식사접대(請客)가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며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손해는 보지 않으려 한다. 정치를 관시와 식사접대(請客)와 같은 사적(私的)인 이해관계의 확대로 보는 기존의 시각과, 이념과 목표가 분명한 공적(公的)인 정치적 과정으로 보는 새로운 세대의 시각은 이렇게 미묘한 차이와 충돌의 지점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나오는 말

본 논문은 한국 화교사회의 조직구조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갈등과 변화의 과정에 주목했다. 특히 인천 화교들의 대표적인 정치적 조직들을 중심으로 공적인 정치적 과정과 사적인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방식의 갈등을 겪는지 현지조사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관시(關係)와 같은 중국사회의 전통적인 사회자본이 정치자본으로 전환되는 양상과 새로운 세대들의 탈지역적이며 코스모폴리탄적인 전망에 바탕을 둔 이념의 등장에 따른 화교사회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했다.

한국 화교사회의 정치조직과 경제조직은 그 형태에 있어 시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 조직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원리들은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화교사회 혹은 에스닉 엔클레이브(ethnic enclave)들은 민족국가 체제나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양식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공동체 혹은 에스닉 집단에 착근된(embedded) 특수한 경제 원리와 가치가 여전히 시장경제 및 이데올로기를 압도하며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구체적으로 공적인 정치적 과정과 사적인 관계가 구별되기 힘들게 나타난다. 그동안 화교사회의 정치조직을 뒷받침해주었던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관시(關係), 런칭(人情), 미엔쯔(面子), 바오(報)로 대표될 수 있으며 칭커(請客, 식사초대)는 이들 운영원리가 종합적으로 실천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자본의 소유는 조직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 되었으며 또한 사회자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지의 능력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되어왔다. 그러나 화교사회

한국 화교사회의 정치적 조직과 역동성-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의 이러한 원리들은 1992년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새로운 세대의 부상과 함께 경제적 합리성과 공공성의 실천이 요청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원리들이 협상 및 조정에 직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화교사회의 정치조직 및 결사체는 정치를 사적(私的)인 이해관계로 보는 시각과 공적(公的)인 정치적 과정으로 보는 세대별 시각 간의 미묘한 충돌로 표출되며 이 과정에서 한국 화교사회는 그 구조적 변형이 불가피해진다.

주제어 : 화교, 차이나타운, 정치 조직, 관시(關係), 세대, 사회자본, 정치자본

(논문투고: 2011.5.16/ 논문심사완료: 2011.6.9/ 논문게재 확정일: 2011.6.20)

<부록> 주요 면담자의 인적사항 일람표(2005년 현재 기준)

번호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직업	직책
1	S씨	남	51세	인천시 중구 북성동	음식점 경영	촉진회 1대 회장, 인천화 교협회 부회장, 차이나타 운 상가번영회 회장
2	W씨	남	45세	인천시 중구 북성동	한의원 경영	제2대 촉진회 회장
3	C씨	남	58세	인천시 남구 주안동	음식점 경영	전 촉진회 감사
4	K씨	남	51세	인천시 중구 북성동	음식점 경영	인천화교협회 임원

참고문헌

- 김기호, 「초국가 시대의 이주민 정체성: 한국화교의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5.
- 김희신, 「주조선사관(駐朝鮮使館)의 화교 실태조사와 관리: 청일전쟁 이전 한성(漢城), 인천(仁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34, 2010, pp.205-236.
- 박상순, 「在韓中國人の 法的地位에 관한 研究: 臺灣系中國人을 中心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은경, 『한국화교의 種族性』, 한국연구원, 1986.
- _____. 「다수민사회로서의 싱가포르 화인」, 『동남아의 화인사회』, 서울: 전통과 현대, 2000, 311-370쪽.
-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한국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4.
- 왕은미(王恩美), 「미군정기의 한국화교사회: 미군정·중화민국정부·한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7(1), 현대중국학회, 2005, 87-132쪽.
- 李玉蓮, 「近代 韓國華僑社會의 形成과 展開」, 인하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 이은자, 「청말(淸末) 주한(駐韓) 상무서(商務署) 조직(組織)과 그 위상(位相)」, 『명청사연구』30, 2008, 359-396쪽.
- 이창호, 「한국 화교(華僑)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공간: 인천 화교의 관시(關係)와 후이(會)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4(1),

2008, 75-122쪽.

_____. 「한국 화교의 공간인식과 이주성(移住性): 조상숭배관
념과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Homo Migrans』2, 2010, 115-
136쪽.

장세윤, 「만보산사건 전후 시기 인천 시민과 화교의 동향」, 『인천학연
구』2(1),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3, 189-235쪽.

장수현, 「한화(韓華), 그 배제의 역사」, 『당대비평』19호, 2002, 245-
258쪽.

최종렬,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사회자
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 『한국사회학』38, 2004, 97-132쪽.

喬健, 「關系芻議」, 『中國人的心理』. 楊國樞(主編), 南京: 江蘇教育出版
社, 2006, pp.82-95.

杜書溥, 『仁川華僑教育百年史』, 2001.

麥禮謙, 『從華僑到華人: 二十世紀美國華人社會發展史』. 香港: 三聯書
店(香港)有限公司, 1992.

費孝通, 『鄉土中國·生育制度』.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1947)(이
경규 역, 『중국사회의 기본구조』, 일조각, 1995).

麥禮謙, 『從華僑到華人: 二十世紀美國華人社會發展史』, 香港: 三聯書
店(香港)有限公司, 1992.

佐斌, 『中國人的臉与面子: 本土社會心理學探索』, 武漢: 華中師範大學
出版社, 1997.

黃光國, 「中國人的人情關係」, 『中國人: 觀念与行爲』. 文崇一·蕭新煌
(主編),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2006, 30-50쪽.

Crissman, Lawrence, “The Segmentary Structure of Urban Chinese
Communities”, *City Ways: A Selective Reader in Urban*

- Anthropology*, John Fridel & Noel J. Chrisman(eds.).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75(1967), pp.274-297.
- Chan Kwok-bun, *Chinese Identities, Ethnicity and Cosmopolitan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 Chen, Hsiang-Shui, *Chinatown No More: Taiwan Immigrants in Contemporary New York*,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 Gold, Thomas, Doug Guthrie & David Wank.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Guanxi”. Thomas Gold, Doug Guthrie, and David Wank(eds.). *Social Connections in China: Institutions, Culture, and the Changing Nature of Guanx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1-20.
- Kipnis, Andrew B, *Producing Guanxi: Sentiment, Self and Subculture in a North China Village*,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7.
- Portes, Alejandro, “Economic Sociology and the Sociology of Immigration: A Conceptual Overview”, Alejandro Portes(ed.),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5, pp.1-41.
- Redding, S. Gordon, *The Spirit of Chinese Capitalism*, Berlin ·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3.
- Sahlins, Marshall, *Stone Age Economics*, New York: Aldine De Gruyter, 1972.
- Swartz, Marc J. & Victor W. Turner & Arthur Tuden, “Introduction”.

- Marc J. Swartz & Victor W. Turner & Arthur Tuden(eds.),
Political Anthropolog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1966.
- Tong Chee Kiong & Yong Pit Kee, "Xinyong and Chinese Business
Network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9(1), 1998,
pp.75-96.
- Weiss, Melford, *Vally City: A Chinese Community in America*.
Cambridge: Schenkman, 1974.
- Wong, Bernard P., *Chinatown: Economic adaptation and Ethnic
Identity of the Chines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2.
- Yan, Yunxiang, *The Flow of Gifts: Reciprocity and Social
Networks in a Chinese Villa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 Yang, Mayfair Mei-hui, *Gifts Favors & Banquets: The Art of
Social Relationships in China*,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1. 자료

韓國仁川華僑協會, 『韓國仁川華僑協會 僑情簡報』, 2001.

2. 신문

『문화일보』 2004년 4월 26일자 『영종 차이나타운 현실성 논란 - 화교
자본 유치 불투명...개발 중복투자 걸림돌』.

『인천일보』 2002년 12월 9일자 『인천 화교 중국 평화통일 촉구』.

한국 화교사회의 정치적 조직과 역동성-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_____. 2002년 12월 12일자 『인천화교 中 평화통일촉진회 창
립총회』.

『중앙일보』1992년 8월 24일자 『華僑학교 ‘눈물의 수업’』.

3. 인터넷

台灣省各縣市實施地方自治綱要 홈페이지

(<http://www.fayixing.com/lawcontent.jsp?id=140688>)

中國和平統一促進會(<http://www.zhongguotongcuhui.org.cn>)

中國網(<http://www.china.com.cn/chinese/TCC/haixia/463731.htm>)

한국중화총상회 홈페이지(<http://www.kccci.or.kr/>)

한국한성화교협회 홈페이지(<http://www.crask.or.kr>)

Political Organizations and Dynamics of Overseas Chinese Society in Korea: Focusing on Incheon Chinatown

Lee, Chang-ho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cess of conflict and periodic change of political organizations on overseas Chinese society in Korea. Based on fieldwork this article analyzes how public political processes and personal relationships overseas Chinese in Incheon interact and face various tensions by focusing on political and economical organizations. Through this research I will illuminate how traditional social capitals of Chinese like *guanxi* are transformed to political capital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in overseas Chinese society in conjunction with the appearance of Western rationality.

The important socio-political principles operating in overseas Chinese society in Incheon are *guanxi*(關係), *renqing*(人情), *mianzi*(面子), and *bao*(報). The banquet(*qingke*, 請客) is the place and space where these principles are comprehensively practiced. Therefore the ownership of such social capitals is an important virtue of a leader and the leadership is measured by how well he or she converts social capitals to political capitals.

한국 화교사회의 정치적 조직과 역동성-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Nevertheless these socio-political principles of overseas Chinese society are negotiated and rearranged as the need for economic rationality and community service arose after the normaliz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Key Words : Overseas Chinese, Chinatown, Political Organization, Guanxi, Generation, Social Capital, Political Capital